

저자  
(Authors) 강성일

출처  
(Source) [어문학](#) , 1959.7, 17-37(21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1959.7, 17-37(2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3058>

APA Style 강성일 (1959). 고대어의 형태론적 연구시고(하)-이독<재, 거>자를 중심으로-.  
어문학, 17-3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1 15:5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古代語의 形態論的 研究試攷(下)

——吏讀 <在,去> 字를 中心으로——

姜 成 一

## 一. 序 論

## 二. 本 論

### (1) 在,去의 表記法과 意味機能

§ 1. “在”形

§ 3. “+在隱”形

§ 5. “s+去乙”形

§ 7. “s+去乙良”形

§ 9. “s+去乃”形

§ 11. “s+去等”形

§ 2. “s+在”形

§ 4. “s+在乙(以上제3집 수동)”

§ 6. “s+在<乙良  
隱乙良”形

§ 8. “s+在乃”形

§ 10. “s+良在乙  
等”形

### (2) 時間相補助語幹 “~거”形의 再構

## 三. 結 論

### § 4. “s+在乙”形

앞에서 連體形 “~나, ~고, ~건”은 各種의 格語尾를 取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여기 “~乙”은 文法上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가, 吏讀 “乙”字는 古地名, 物名等에 音節末音 r( ) 音表記를 除外하고 아래와 같은 表記例가 있다.

薯童房乙夜亥卯乙抱遺去如

功德叱身乙對爲白惡只

佛前燈 直體良焉多衣

社稷 危亡爲只爲

本國 乙背叛爲遺

三人 乙殺害爲跡

(薯童論)

(稱讚如來歌)

(廣修供養歌)

(大明律一, 四)

(同 上)

(同, 五)

“乙(音을)”은 對格에 使用되고 있으며 <倭語口訣>에도

乙………ヲ  
 爲巨乙……イタシタルヲ

爲時巨乙……ナサルルヲ (이 乙는 日本語對格, 筆者註)

의 경우와 같이 對格에 쓰여 있다. 이밖에도 古人名 “乙吉子, 乙善次, 乙弗…”  
 …”, 따위 表記例가 보이기는 하나 別로이 문제 삼을 것이 못된다. 여기에  
 서 “s+<sup>在乙</sup><sub>去乙</sub>” 形의 構成이 어찌 되었느냐는 “~{<sup>在乙</sup><sub>去乙</sub>(對格)” 이라 推定  
 해 본다. 于先 表記例를 들어보자.

“s+在乙”形…(用例六)

文官亦犯罪爲申聞合當爲在乙 申聞 不冬爲在乙良 杖一百  
 (大明律 三, 四)

四十貫亦後發 爲在乙 前後贓物 乙 通計 爲乎矣…  
 ( // 一, 三〇)

他戶有贓役 爲在乙 冒弄合戶 爲在乙良, 家長 乙杖一百  
 ( // 四, 二)

凡文官亦國家 良中 大功勞 無在乙 所任官亦贓贖申告爲公候

官爵 乙 差備爲在乙良 …… ( // 二, 二)

“s+去乙”形…(用例七)

又赴役 爲, 限日已滿 爲去乙 放送 不冬爲在 官員乙良, 並只一日  
 是去等答一十 (答 四, 六)

決杖七十 爲有去乙 一度後發 爲去乙 贓物乙計 爲乎矣…  
 ( // 一, 三〇)

凡前犯罪狀已突 爲去乙, 又犯罪 爲在乙良, 從重科斷齊  
 ( // 一, 二〇)

凡妻亦 可黜 可絕之事 無去乙, 黜送 爲在乙良, 杖八十齊  
 ( // 六, 九)

用例六과 七의 用法은 意味論的으로 分岐

(i) 名詞+爲<<sup>在乙</sup><sub>去乙</sub>>……不冬爲在 (名詞) 乙良…

(ii) 名詞+爲<<sup>在乙</sup><sub>去乙</sub>> ……乙… 爲乎矣 ……

(iii) 名詞+無<<sup>在乙</sup><sub>去乙</sub>> ……爲在乙良

과 같이 되어 兩者 사이에는 조금도 差異가 없다. 兩形이 다 같이 現代 文法에서 말하는 “動한다, 明白하다……” 따위 用言을 形成하고 있다. 그리하여

“~在乙”形은 第一次的으로  
 “~去乙”形은 第一次的으로

“~去 것을, ~는 것을”,…… ~在~ ~去~은 冠形詞的. 구질所有, ~乙은 對格과 같이 되고, 第二次的으로

“~去게, ~는데,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로 옮겨져 이미 過去의 事實로 들어난 動作狀態를 拘束하는 意味 機能을 表示하고 있다. 그런데 이 兩形을 餘他 表記例에서 比較해 볼때 “~在乙”形에 있어서는 第一次的인 意味가 強하게 認識되는데 比하여, “~去乙”形에 있어서는 第一次的인 意味보다 오히려 第二次的인 意味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同一한 意味, 機能을 가진 二重의 形態를 우리는 言語의 歷史的 發達에서 解釋해 보려한다. 于先 例를 들어 보자.

(用例八) 其子 乙良 違 父母 遣, 次序適當 爲在乙用良, 改立 令是乎事  
 (大明律 四, 四)

(訓法, 罰錢을 쓰아, ~去, 한 것을 쓰아—한 것으로써)  
 流三千里犯罪 爲在乙, 減一等 爲乎第亦中, 徒役三年之類  
 ( “ 一, 四)

( “ , ~去, 한 것을)  
 人亦笞五十乙犯 爲在乙, 減一等 爲乎第亦中, 卽 笞四十齊  
 (同 上)

( “ , ~去, 同 上)

의 경우 “~在乙”의 “~在~”이 前述한 바와 같이 後行名詞를 限定하고 名詞의 後行을 要求하는 限定的인 구질이 強하게 認識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第二次的인 意味에 있어서는 “~去~”의 末音인 “~去~”이 對格 “~을”과 癒着하여 卽 接尾辭化하여 過去의 事實拘束이란 條件法의 機能을 세로 가지게 될 것이라 본다. 이 意味分化的 發達 過程에 “~在乙”의 轉用形態인 “~去乙”形이 發生된 것이 아닌가 한다.

(用例九) 合婚日已到 爲去乙, 嫁亦無緣故推稱, 違期 爲在乙良, 並只, 笞五十  
 (大明律 六, 二)

親男亦冇殘疾 爲去乙, 兄果弟 果乙用良 相見 令是遣  
 ( “ 上)

正妻現在 爲去乙, 他妻更娶 爲在乙良, 杖九十遣

( “ 六, 三)

嫡妻生存 爲去乙, 以妾爲妻者杖九十遣 並只 改正齊

( “ 上)

女夫 有去乙, 他人再嫁 令是在乙良, 杖一百 ( “ 上)

(訓法 ㅅ/잇거늘, ~뜻, ~ㄴ/~는 것을, ~ㄴ/~는데, ~았/있는데도 不拘하고)

의 경우 이 “~去乙” 形은 第一次인 意味에서 解하는 것보다 事實拘束形으로 가령 “正妻가 現在하고 있는데 他妻更娶한 것은 杖을 九十친다. 곧 主體의 狀態가 그 行爲를 拘束하는 條件으로 解釋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卽 “~去乙”은 主體의 行爲에 對하여 客體인 罰則을 充足시키는 要件의 叙述形態이다. 그리하여 第一次의에서나 第二次의 意味機能에서나 “~在乙과, ~去乙” 兩形은 훌륭하게 對應이 된다하겠다.

時制表示에 있어서도 “現在하거늘, 生存하거늘, 잇거늘”은 現在或은 過去의 어느 狀態를 叙述하고 있는지 分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表現形態를 歷史的 現在 (historical present)라 하여 “去乙(~거늘)”은 現在形이라 할지 모르나, 國語의 “~ㄴ” ㅅ은 過去를 表示하는 連體形이라는 것과 위 Sentence에 있어서 “~去乙” 形에 後行하고 있는 “~在乙良” 形이 過去表示의 形態라는 것을 아울러 생각할 때, 여기 “~去乙” 形은 亦是 過去形이라 할수 있다.

우리는 “~在乙” 形과 “~去乙” 形의 意味의 變差에 注視하여야 한다. 비단 兩形의 對比에서만 아니라, “~在” (限定的)에서 “~在乙”(條件法的)에 로, 그리고 “~在乙”의 轉用으로 意味가 分化되어 갔다는 派生語 形成은 基本手段은 아니었는지 모르나, 하나의 중요한 原始的인 語辭의 派生法이 있음에 틀림 없다. 이러한 視點에서 “~在”이 “~隱, ~乙” 따위 格助詞를 取함으로써 어떠한 語義의 差異를 보이는가 考察하기로 한다.

以上論한 바 吏讀 “在, 去”字의 機能을 中心으로 總括的으로 提示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 { S + 在.....限定的 구실 所有
- { S + 去.....表記例가 없다.
- 2. { S + 在隱...(第一次的)...(a)...~在~은 限定的 구실 所有. 隱은 絕對格 表示
- { S + 在隱...(第二次的)...(b)...接尾辭化하여 條件法的의 機能 表示
- { S + 去隱.....表記例가 없다.

3.  $\left\{ \begin{array}{l} S + \text{在乙} \dots \left\{ \begin{array}{l} \text{(第一次的) \dots (a) } \sim \text{在} \sim \text{은 限定的 구실 所有,} \\ \sim \text{乙은 對格表示} \\ \text{(第二次的) \dots (b) 接尾辭化하여 條件法 表示} \end{array} \right. \\ S + \text{去乙} \dots \dots \dots \text{“在乙”形의 a, b와 같다.} \end{array} \right.$
- (1, 2, 3 順序대로 說明한다)

“~去, ~去隱”形이 表記例로서는 없다 할지라도, 3의 a, b에서 이 兩形의 存在를 想定할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兩形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은 ‘~在’字의 限定的인 구실을 그만큼 強하게 意識하고 있었고, “~去乙”形은 “~在乙”形에서 類推的인 心理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在字가 各種 格語尾를 取함으로써 意味가 分化되어 나간 傾向과 “~去(去)”이 各種 格語尾를 取함으로써 語義가 分化되어 나간 것과 全然 同軌이니, 더욱이 그렇게 느껴지는 터이다. 이 作業이 다만 逆視的이라 굳이 試圖임을 말해 둔다.

1. S+去(去).....限定的 구실 所有

그의 아래 더나건毗婆尸佛 위함은바 (釋詳六, 三六)

더나건 山에 白帝城에 누니 山에 雲이 더나건 (二去年白帝雲在山) (杜諺一〇, 四〇)

귀는 더나건 耳로부터 머구라 二耳從前月聲 (〃三, 五四)

過去는 더나건 前이오 (〃月釋二, 二一之一)

더나건 劫에 부레 겨사디 (靈驗略抄, 一)

더나건 劫 일후미 莊嚴劫이오 (月釋一, 五〇)

이 “~去”과 “~在(在)”과 對應시켜 보면 “~去對 /~在”이 淸楚하게 對應이 된다.

2. S+去은(去隱) /去.....條件法의 구실 所有

앞에서 F3에서 “~在隱對~안”(條件法의 구실에서)을 提示한바 있다. 이 “~안”形이 “S+去”形과 同義語(Synonym)이니 곧

부레 大慈로 爲호야 닐어시닐... (=佛이 大慈로 爲說호야시닐...) (金剛經序, 二~五)

부레 이經을 닐어시닐... (=佛說此經已호야시닐...) (阿彌陀經 二九)

사타 道로 理를 알며 性을 보게 호야시닐... (=令人悟理見性이어시닐...) ( )

榮養을 쉰리 分려(리겨)시닐... (=奄棄榮養호야시닐) (月釋序, 六)

호오아 一人을 爲호야시니와... (=獨鳥於一人이어시니와...) (永嘉集上, 七四)

無語驚懼 ㅎ야지이나… (=모든 놀람과 저춤 업지이다)

(同下, 一四〇)

第一엔 주오르미 오나 (=온아) 든… (=一者엔 匪魔 커든 (ㅎ거든)

(蒙山法語 三二)

副詞形 “~야/~어, ~이/~어”와 “~거”는 文法上 구실에 있어서 何等の 差異를 發見한 수 없다. 이 “ㅎ얀/ㅎ야는”, 對 “ㅎ전/ㅎ거는”形과 對應시켜 보면, “~얀=~건”을 일게 되는데 “비록 表記例 (文獻에)는 없다. 손치드 래도 “~거는(去隱)” (條件法 意味)形을 推定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在隱”形과 “ㅎ얀”形의 表記例는 앞에서 提한 바와 같다.

### 3. S+거늘(去乙)……a 限定的 구실 所有

니락거늘 드로니 三年을 일즉 말아니 ㅎ고 (=問道三年未會語)

(杜諺廿五, 一〇)

비르수 썸나무 무늘 두드리 거늘 드로라 (=始聞和柴荆)

(永가集下, 七一)

썸 무덧 우회 좃구녀서 거를 구머 먹거늘 ㅎ고 (月釋九, 三七)

니락 거늘 들노니……(問道……) (杜諺二, 二)

니락 거늘 드로니 和親 ㅎ고 드리오니 (問道和親人) (一廿四, 一二)

자최늘 디엿거늘 고앗 ㅎ다 (松江歌辭, 短歌)

和尙이 應 가웃디 안셋거늘 ㅎ고 (佛頂心經下, P. 75)

의 경우 “~거늘”의 “~전”에 限定的 구실이 있으며, 被限定 名詞가 省略된 었다고 보며 “~을”은 對格을 表示하고 있다.

### (3), S+거늘(去乙)……b 條件法의 機能 表示

寂寂호미 일후미 ㅎ거늘 어데 法身이라 일홈지호노 (釋譜序, 五)

중적(衆賊)이 좃거늘 재너터 티샤 (龍歌, 四〇)

ㄹ극매 ㅂ업거늘 일우시고 썸노기시니 (九, 二〇)

보른 가거늘 나그내논 도라 가디 불호라 (杜諺七, 一一)

소리 나거늘 ㅎ마도로 숨제 노라 (八, 五九)

無憂樹 ㄹ지 ㅎ거늘 어마님 자모샤 (月釋二, 三三)

豺狼은 都邑에 잇거늘 龍은 머해 잇노니 (杜諺八, 二)

여기 “~전”은 限定的인 구실도, “을”의 對格的 意味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거늘”로 癒着한어 곧 接尾辭化한어 動作, 狀態를 拘束하는 意味 機能을 表示하고 있다. 李朝語 “~전, ~거늘”이 吏讀 “~去, ~去乙”의 表記 印은 贅言을 要치 않은마, 여기 “~去乙”과 “在乙”의 對應이 可能하다 하겠

다. 卽

~在乙 對 ~去乙.....F4

와 같이 成立된다. 이것의 成立與否는 다음 表記例로 보면 明證의 事實일 것이다.

§ 6. S+在< 乙 良 隱乙良 形

§ 7. S+去乙良 形

前述 “~在乙” 形과 “~在乙良” 形이 吏諺에 가장 빈번하게 쓰이고 있음에 比하여 “~在隱乙良, 과 ~去乙良” 形은 各各 表記例 하나씩 밖에 찾아 못하였다. 于先 “~乙良” 의 訓法과 文法上의 구실을 生고해 보기로 하자.

- 으란.....(古今)
- 을안.....(吏文)
- 을아.....(吏便)
- 을안.....(彙編)
- 을쇼이.....(語錄)

와 같이 訓讀되어 있고, 梁柱東博士와 小倉博士도 各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3) (14)

「乙良」은 母音終名詞下에서 “르란”, 子音終名詞下에서 “을 란” 이니, 要컨대 目的格助詞 “리” (「으」는 調音素)과 指定詞 “란” (라+ㄴ)과의 合成, 곧 文法으로 目的指定格에 該當한다」고

「乙良」은 을안 訖辭하 “하”, 하 “하”의」라

하였으니, 여기서 “乙良” 의 訓法을 檢査할 수 있다. 그리고 “乙良” 의 用法은

- 聘財乙良 不論罪 (大明律六, 四)
- 併以石乙良 第二年春節 已只了兮齊造 (淨兜寺石塔記)
- 爲妾者 乙良 減二等齊 (大明律六, 四)
- 依回啓施行 爲乎矣 洪有一乙良 爲先刑推得情 (凝川 日錄)
- 油清 乙良 急急備納爲添 (亂中雜錄)

의 경우와 같이 吏諺文에서는 “乙良”은 名詞終聲에 拘碍 되지않고 連結되어 目的을 明示하는 絶對格의 意味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文獻語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 여섯 아들란 술마 잣 일이고 (釋詳六, 一三)
- 도호 일란 네게 보내고 구준 일란 누워게 주노니 (金剛經, 二一)
- 德으란 품비에 받습고 福으란 립비에 받습고 (樂軌, 動動)
- 저근의 말으란 아모일도 의종향고 (父母恩董經)
- 아스와 아들술란 두코 (二倫行實)

高城을란 더만 두고 (松江歌辭, 關東別曲)  
 나즈란 디네와 손더 (樂章, 靑山別曲)  
 불그니란 보름과 서리에 여르물 두고 (杜慈一八, 三)

와 같이 吏讀 “乙良”은 國語로 “란, 으란, 을란”으로 表記되어 主로 絶對格의으로 쓰이고 있음이 吏讀의 表記例와 一致하나, 用言의 語幹이나 連體形下에 連結된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嶺南方言에 “을란, 근라, 을난, 을낭”의 形態로서 體言下에선 絶對格으로 用言下에선 條件法的으로 쓰이고 있다.

엄마란(어머니는) 가지마라.  
 널란/널라(너는) 집에서 일 해라.  
 집에 가 보고 자거들랑 깨꾸지 마라.  
 밭에가 보고 일하거들라 거드러 조라.

以上의 考察에서 吏讀 “乙良”의 訓法과 文法上의 구실은 전각 되리라 고 본다. 그렇다면 이것이 “~在, 在隱, ~去”에 連結되어 어떤 意味機能을 表示하고 있는가 살펴 보기로 하자.

1. ~在乙良, 形 (用例十)

凡僧人等亦娶妻 爲在乙良, 杖八十遺(凡僧道娶妻妾者杖八十)  
 (大明律六, 七)  
 (訓法, 흥견을란, 뜻, ~란 者는, 했는者는, 한 경우에는, 했을 것 같으면……)

洪武元年已前嫁娶 爲在乙良, 勿論爲乎矣(其在洪武元年已前娶者勿論)  
 (同上)

(同上)  
 良人乙交嫁 令是在乙良, 杖九十遺(而與良人爲夫妻者杖九十)  
 (同 六, 八)

(訓法 시키전을란, 뜻, 시킨 者는, 시켰는者는, 시켰으면, 시켰을 것 같으면)

凡犯罪人亦未發前自告 爲在乙良, 莫其罪爲遺(凡犯罪未發而自告者免其罪)  
 (一, 二六)

2. ~在隱乙良, 形 (用例十一)

曾只秋收爲預先棒上 爲在隱乙良 不在此律(如早收去處, 預先收受者不拘此律)  
 (〃七, 二~三)

(訓法 흥견은을란, 뜻, 한者는, 했는者는, 했으면, 했을 것 같으면)

3. ~去乙良, 形 (用例十二)

癡疾時犯罪 爲遣, 篤疾時事發 爲去乙良, 申聞待決齊, 八十九 犯  
 爲遣, 九十歲時事發 爲在乙良, 勿論罪 爲乎事 = 或癡疾時犯罪, 篤疾時  
 事發, 得入上請, 八十九犯死罪, 九十事 發得入勿論之類)

(// 一, 二三)

(法訓 ① 흥견을란, 뜻, 한者는, 했으면, 했을 것 같으면)  
 ② 흥견을란, 뜻, 同 上)

以上 諸例에서 共通된 特徵은 “~在, ~在隱, ~去”의 冠形詞的 機能이 强하게 看取되고, 第二次의으로 語尾 “~乙良”과 癒着하여 “在~, 去”의 本質的인 機能은 退化하고 文法의 條件法의 구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傾向은 前出 “~在乙과 ~去乙”에서와 같다.

吏讀 創制時代 부터 “~在”의 限定的 用法을 얼마나 强하게 意識하고 있었는 否는 다음 用例에 이를 端的으로 證明하여 준다. (用例十三)

公事以犯罪爲去等 當答爲在 官員 乙良 贖罪爲遣 (大明律一, 一〇)  
 殺人, 枉法受財 爲在人 乙良 不用此律齊 (一一, 一二)  
 贖罪 爲在 人 乙良, 節制使 式只 處決分斷 爲乎事 (一四, 四~五)  
 詐給 爲在 官吏 乙良 各減一等爲乎事 (一六, 七)  
 (뜻 한 (官員, 人, 官吏)는/은)

“~爲在乙良, 杖八十遣와 ~爲在 官員 乙良 贖罪爲遣”와를 對應시켜 보면 吏讀 “~在~” 字다음에 名詞가 省略될 수 있다는 것을 容易한게 알수있다. 그리고 用例十一과 十三을, 同十二의 “~去乙良과 ~在乙良”을 各各 對應시켜 보면

- ……捧上 爲在隱乙良 不在此律
- ……受財 爲在人乙良 不用此律齊
- ……事發 爲去乙良 申聞待決齊
- ……事發 爲在乙良 勿論罪爲乎事

의 경우 情狀에 따라 加해지는 罰則에 差異가 있을 뿐, 三形이 用法(=表記法)意味 機能에 있어서 全然 同一하다는 것을 認定할 수 없다. 따라서

~在乙良 = 在隱乙良 對 ~去乙良……………F5

와 같이 되는 터이다. 李朝語에 “~견을랑”形이 用言의 語幹에 連結된 形態는 보이지 않으며, 오직 嶺南方言에 남아 있을 뿐이다.

§ 8. S+在乃 形      § 9. S+去乃

S+在乃, 形 (用例十四)

必于 已決罪 爲在乃, 財產數交乙 件記 以 入官 不冬爲在乙良, 並只 免赦 爲遺 (大明律 一, 二五)

囚人亦 必于已 招服 爲在乃 親族故交 亦中 自謂 不冬爲有果 ( // 二八, 六)

必于 刺字乙 免爲在乃, 三犯是去等一體絞死 爲乎事 ( // 一八, 九)

貨錢亦 必于 數多 爲在乃 本價良中 過數 不冬爲只爲, 生數齊 ( // 一, 二六)

S+去乃, 形 (用例十四)

本條良中 罪各 亦 明白 爲去乃, 免罪爲要, 國避爲在乙良, 從重論齊 ( // 一, 三八)

執狀內 必于差 錯爲去乃, 不害於事 爲在乙良, 勿論罪爲乎事 ( // 三, 三)

年限已滿 爲去乃, 本主亦 價木全無, 還退 不得爲在乙良, 不抗此律 ( // 五, 五)

罪各亦 有去乃 斷例以 不同爲在乙良, 本條乙 依准科斷齊 ( // 一, 三八)

語尾 “~乃” 字는 是乃, 爲乎乃의 乃字와 同系列의 구실을 하는 乃字로 彙編以下 諸書에 “나”로 訓讀되어 있기 在乃 (진나/겨나), 去乃 (거나)가 되는 터이다. 諸例의 共通點은 “在, 去”의 冠形詞의 구실을 찾아볼 수 없고, 主體의 行動이나, 狀態가 結果의 內容에 對하여 拘束을 받지 않은다는 意味를 表現하고 있다. 따라서 그 뜻은 各各

~爲在乃是……했지마는, 했어도, 했으나, 하나

~爲去乃是……하나, 있으나, 하지마는, 있어도

와 같이 된다. 兩形共히 補助의 意味機能을 가진 “已字”나 吏讀 “~爲在乙良”을 생각하지 아니하던 過去의 動作 狀態를 敘述하고 있는지 現在의 그것인지 分揀하기 어렵다. 그것은 吏讀의 創制時代에 “在”은 過去連體形이었으나 接尾辭化함으로써 그本質의인 意味機能이 喪失되자 時制도 不透明해졌다고 하였다. 마치 連去連體形 “한”이 “하니,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底意에 “~在, ~去”가 過去連體形이라는 表記意識은 “已”字나 “爲在乙良” 形으로 比하여 推測된다. “~在乃”가 類推的 發達로 “~去乃”에 轉用되어 李朝語문 거쳐 오늘날 “사거나 일하거나, 말거나” 의지로 定着되어 있다. 李朝語에

- 모차거나 도르거나 풀외거나 (月釋九, 八四)
- 不孝한 호거나 五逆을 호거나 (釋律九, 三八)
- 오리 호니거나 꺾마니 있거나 (蒙山法語, 六)
- 이사락미佐거나 풀거나 (佛頂心羅尼經上)
- 블서나거나 이제 나거나 장차 나거나 호리다 (若已生거나 若今生거나 若當生거나) (阿彌陀經一六)

와 같이 表記되어 時刻 表示의 副詞 붙서 (過去), 이제 (現在), 장차(未來)에 分棟하지 않고 連結되어 있어 “~거나”의 (~거-) 自體에는 時刻 表示가 完全히 退化하고 말았다. 여기 兩形이 用法機能에 있어서 對應이 됨은 말할 나위 없다.

~在乃 對 ~去乃.....P 6

§ 10. S+良在 { 等 形, § 11. S+去 等, 形  
                  乙 良

S+良在等 形”(用例十六)

- 財物乙 偷取爲 傍人亦受用爲良在等. 用者 乙當爲 生戮齊 (大明律一, 二二)
- 凡爭訟事乙 告狀 爲良在等. 兩邊乙 對論 爲乎矣 (〃 二八, 八)
- 族長亦族下處良中 強盜 爲良在等 各依上減罪齊 (〃 一八, 一〇)
- 廢疾之人亦犯罪 爲良在等 流罪以下 乙良 並只 收贖齊 (〃 一, 二一)

S+去等 形 (用例十七)

- 有大功勞 爲去等 右功勞 乙 大常旗 良中 書上 爲有臥乎人 (〃 一, 七)
- 五品以上官 亦犯爲去等 申聞爲 伏候王旨爲白違 (〃 一, 八~九)
- 凡文官亦 私罪 乙犯 爲去等 笞四十以下 乙良 過名乙 施行遣 (〃 一, 一十)

本司官員亦 四等官 無去等 時在員數以 傳傳減數齊 (〃 一, 三九)

吏讀 “等”字의 訓法은 < 彙倭 > 以下 諸書에 “든, 들, 동, 동, 들” 따워 로 表記되어 있다. “동”은 “등”의 俗綴이라고 보며 “든”으로 借用된 緣由은 < 三國史記 > 地名 中의

偏嶮 孫去高句麗 平珍峴縣

와 같이 古代에는 終聲 ~n(L)과, ㅎ(O) 끝 偏원과 平聲은 서로 相通하였

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그리고 <古今>에서 “等狀○多人列各呈狀謂之等狀. 이라 하였으니 漢字音 “等”은 多數를 意味하는 말로, 漢文으로 “등”, 國語로 “들”이다. 吾等(오등)은 國語로 “우리들”이다. 이 複數接尾辭 “들”은 羅代 以後 近來부터 慣用되어 온 語辭이다. 따라서 複數의 뜻이 없는 單純한 接尾辭로서의 “等”字 “든/들”로 읽을 수 있다. 그리하여

- ~良在等은      ~야/~여/~아/~어 건든/견들
- ~去等은        ~건든→거든(=自生的發達)

으로 辨證된다. 以上 諸例를 檢討해 보건대 “~在等”은 用言의 副詞形에 “~去等”은 語幹에 連結되어 있는點이 다르다. 吏讀에 “~爲在等以(호견들로/느로) “形이 있음에 마땅히 語幹에 直結된 “~爲在等”形이 있어야 되는 터이나 아직 具體 例를 찾지 못하였다. 이와 反對로 “副詞形去等”形도 豫想되는 터이나 具體 例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在等과 ~去等”이 接尾辭化해 갔다는 意識的인 表記形態가 있으니, 于先 例를 들어보자.

爲有+去等(=호잇=했거든과 爲行去等(호였거든)

凡祖父母, 父母亦犯死罪爲, 獄中囚禁爲有去等, 子孫等戈只 嫁娶爲在乙良 杖八十爲遺 (大明律六, 四~五)

凡祖父母·父母生存 爲有去等, 子孫等亦別立家戶, 財產分執爲在乙良 杖, 一百爲乎矣, ( // 四, 九)

邊衛城邑 等處 良中 賊人亦 出入 爲行去等 臨機領兵捕捉 爲在隱 不在此限齊 ( // 四, 六)

爲行(호였)과 爲有(호잇=했) 이 過去를 表示한은 李朝語가 證明한바, “去~”字는 “~等”字와 癒着함으로써 時制 表示의 구실을 退化하고 條件 假定的 意味를 나타내고 있다. 이 “爲良在等, 爲有去等, 爲行去等” 三形이 같은 表記 意識下에 쓰여 졌다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따라서

~在等 對 ~去等……………F 7

이 對應이 可能 하며, 李朝語에 들어와서 같은 表記 形態가 나타나고 있으니 더욱이 그렇게 느껴지는 터이다. 言語이 歷史的 發展 段階에는 몇가지 重複 形態가 나타나는 법이다. 우리는 이것을 誤綴이란 安易한 術語로 滿足할 수 있을까

躍進이 喪호거든 나라를 맞드시릴씨 (龍歌, 六)

疑心되빈 고더 잇커든 모보씨 너비 무로보르터 (月釋序, 二〇)

事實이 잇거든 잇다니라고 업거든 업다니라고 (永嘉 下, 四九)

니거든 여려무고 날인가 반기질가 (松江歌辭, 思美人曲)

이 “S+거든”은 “S+去等”이 表記로 “~去(~거)”의 限定的인 구실도 없고 “~든”과 癒着하여 條件 假定の 意味를 나타내고 있다.

물근 門關에 드드리 섰디 아니 하얏거든 中使 나날서르 타오숫  
다 (杜謔八, 八)

ㅁ룩배 고지 디디 아니 하얏거든 成都에 도라오리룬다  
(// 八, 二二)

西天<sub>二</sub>字<sub>一</sub>엿經이 노피 산헛거든 불사르 미……(梵軸이 崇積<sub>一</sub>이  
든 觀者]……) (月釋序, 二三)

술 출겨 더욱 疎放 하얏거든 고벽고 하늘과셔술 고터라  
(杜謔廿四, 三八)

갈기에 구스리 배엿 거든 출로 밋기면 놀근구스른 빠러디고  
(月釋一, 二七)

술 醉 하얏거든 비름부러 盡흥만 ㅁ뜯니 (杜謔 廿五, 二二)

여기 “~거든”의 連結關係로 살펴 보면

a…………~얏/~엇+거든

b…………~아/~이+거든

c…………~아/~이+잇+거든

와 같다. 于先 疑訝를 느끼는 것은 “b”에 對해서이다. 國語는 그 性質上 副詞形에 連結되는 用言은 그 語幹이다. 그러고 보면 “b”이 “~거”는 用言의 語幹이 되는 터이다. 吏讀 “~良在等”의 “~在~”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거”는 語幹이다.

둘째 하얏+(잇)+거든의 “잇”이 省略된 形態이다.

이에 對하여 筆者는 아래와 같이 生覽한다.

佛說이 卽 隨宜爲說 하야 시든 無不契悟 하야 니라(金剛經 七五)

西에 오나치든 夷鄰 비름스뵈니 (龍歌 三八)

說法<sub>一</sub>하쇼셔 하야 시닐 (月印千江之曲十, 其二六六)

翻譯로미 맞당하니라 하야 시닐 (月釋一, 一一)

이런 괴벽론 王<sub>二</sub>씨 하얏 시닐 王이 깃그샤…… (// 二, 二九)

여기 “시”는 李熙昇教授님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미 存在의 뜻은 退化하고, 새로운 구실인 敬意를 表하고 있다. 實로 “하야시~”의 “시”는 語幹에서 敬意 表示에로 派生되어 나갈 그始原 形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얏거든”의 “거”는 그 앞에 “잇(有의 뜻)”이 省略된 것이 아니고,

“기든”의 “거”가 接尾辭化해 나가는 過程에 생긴 同類諸形態中 그 始原形이라 推測된다. 따라서 “~良在等”의 “~在~”도 接尾辭化해 나가는 過程에서 생긴 始原形이라 할 수 있다. “爲在乙과 爲良在乙” “爲在乙과 爲良在乙良”과를 對照시켜 보면 더욱이 그렇게 느껴지는 터이다.

§ 10. S+良在<乙良形,

他人亦人乙殺害 爲良在乙 族下亦 盜例以論齊 (大明律一八, 一一)

大祀神御之物乙偷取 爲良在乙 犯時良中 大祀神御之物 是乎所乙……  
( “ / ” 一, 三九)

植柳乙未及 出 爲良在乙良 杖一百徒三年齊 ( “ / ” 一八, 一五)

囚人亦中 許給 爲良在乙良 杖一百齊 ( “ / ” )

“爲良在乙”은 했는데, 했으면, ~2/~는데  
“爲良在乙良”은 했으면, 했을것 같으면

와 같이 옮겨진다. “在”의 第二次的 發達形態로 完全接尾辭化해 버렸다. 그리고 위 國語表記例中 “노피 사했거든”과 “崇積 | 이든”과를 比較하여 볼때 兩者는 同義語이다. 그런데 形態的으로 “사했~”은 過去形이고, “積 | 이든”은 過去形이라 斷定할 아무 根據도 없다. 그러나 “去等”의 始原形은 “~건든”이 있으리라고 보며, 이것이 自生的 發達로 “~”음이 脫落되어 “~거든”으로 定着함으로써 時制表示가 不透明해진 것이라 推測된다. 다음 用例는 이를 證明하여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더나 가리 行人더브러 무러든…… (過人間行人…) (杜諺四, 一)

惟天이 生聰明을 사든 不惟逸豫라 (醫諺三, 仲虺之諺)

愛宅子茲호살든 時人 | 지니 (同上, 董廣)

巖頭웃 아너린든 德山人喝을 몸알리랴다 (法山話, 三二)

今王이 嗣厥德호살든 罔不在初호느니 (齊經卷三, 伊訓)

여기~아/~어든 形은 現在, ~안/~인든 形은 過去, ~알/~얼든 形은 未來 물各各 表示하고 있다. 連體形 “~니, ~리”에 冠形詞的 用法이 完全退化한 지않고, 若干 看取되가는 하나, “아너린든”은 完全退化했다. 따라서 支那는 文字의 制限으로 한걸 “~去等”으로 表記하였을 뿐이나, 이를 國語로 옮긴다면

~건든……………過去假定

~거든……………現在假定

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건든과 ~거든”이 共有하다가 自生的 發達로 “~거든”으로 統一되었다 하겠다.



<大明律>에 있어서 “在”字는

(N) + 爲(言) + 在(動)

와 같이 現代文法의 “~하다” 따위 用語의 語幹에 連結되어 있고, <朝鮮雜記>에 있어서는

(V) + 在

과 같이 漢文의 動詞 “成, 願”에 連結되어, 吏讀文에 있어서 兩者가 同一한 意味機能을 表示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在”字의 冠形詞的 用法은 아니더라도 <葛項寺造塔記>에도

(B)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甥姊妹三人業以成在之

甥者零妙寺言寂法師在跡

姊者 照文皇太後君姊在跡

妹者 敬信大王妹在也.

와 같이 “立/成(=V)”在의 形式을 取하였고, 接續形 “在跡”(전이며)와 終止形 “在也”(전이오)에 있어서는 “……法師(V)在跡, ……姊(V)在也”와 같이 漢文의 “V”가 省略된 것이 아닌가 한다.

卽 “法師, 姊” 다음에 漢文의 動詞나 吏讀 國語表記의 用語의 語幹이 省略되어 있지 않는 가 한다.

一家內死罪不喻在三人乙殺害爲跡 (大明律一, 五)

父矣兄弟在伯叔父妻伯叔妻在母果 ( " 一, 四)

凡人亦網羅親是在兄果…………… ( " 二一, 二)

一息程途是在同白巖寺乙沙 (宣德六年盛務宮貼傳書)

의 경우 先行音節의 末音에 따라 “是(=to be의 뜻)”가 省略된 것 같기도 하나, 마지막 表記例의 “~途(도)是在”을 볼때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C) 1. 大山是在以別地主無亦在跡衆矣白陽(乎)乎白如可(慈寂禪師凌雲塔記)

2. 今月一日陪到爲賜乎尊亦在等以本來瑠璃窗…………… (淨兜寺造塔記)

3. 淨兜寺良中安僧令是白於爲發出納爲乎事亦在乙…………… (同上)

4. 山中新處口元聞爲成造爲內乎亦在之白賜……………

(慈寂禪師凌雲塔記

여기 “亦在徐, 亦在等以, 亦在乙, “亦”에 對하여 小倉博士(16)가 밝힌 바 있다.

이것의 訓法도 “이/히, 여”, 文法上의 구질도 實로 多岐여서 連斷하기는 어렵으나 다만 그것이 “在”字에 先行하는 語辭의 接尾辭라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在徐, ~在等以, ~在乙, ~在之”의 “在”에 先行하는 어떤 實辭가 B의 경우와 같이 省略된 表記形態라고 보며, “在”字의 文法上 구질로는 第二次語幹으로 第一次 語幹의 補助的意味機能을 表示하고 있다 하겠다. 吏讀의 創制 時代에는 漢文의 動詞에 “在”字를 連結시켜 “成在, 立在, 願在”으로 表記하다가, 다음 “~한다” 따위 動詞를 形成하여 “成을 전, 立을 전 願을 전”으로, 그리고 國語用言의 語幹에 連結시켜 “연 전(無在), 이 전(是在), 잇 전 이 지 전(有在)”으로 表記하였다는 歷史的인 發達의 次第가 看取된다. “N+爲在과 V+在”形이 吏讀文에서 同一한 意味機能을 表示하고 있기, “在”의 造語法上 位置는 第二次語幹으로서, 第一次語幹의 補助的인 구질이라 斷定한다. 그리고 이 補助的인 구질을 가진 形態는 다음 아닌, “거나(有在의 뜻)”의 過去連體形이다. 그러나 이러한 推想을 明證하는 極少 極微의 古形을 發見하여야 하는데, 筆者는 于先 있다고 말하려 한다.

現代語에 있어서도 볼노다(凸見), 낮보다(低見), 오가다(來去)와 같이 用語의 語幹과 語幹을 連結시켜 複合動詞를 形成하는 일이 있다. 古代語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造語法은 흔히 있었던 모양으로 于先 李朝語에 몇가지 보기를 들어 보자

- |                           |             |
|---------------------------|-------------|
| 누리 보를 즈을디녀 나닷다            | (樂學軌範, 動動)  |
| 攻戰에 든니샤 (改戰奔馳)            | (龍歌, 一一三)   |
| 안즘 길노매 어마님 모르시니           | (月釋二, 二四)   |
| 東西로 보니거든                  | (同廿一, 二三)   |
| 吉慶잇 세 누니며                 | (同廿二, 三三)   |
| 옛숫길헤 궂도녀..... (輪廻六道.....) | (月釋序, 四)    |
| 山河 1도도와 솟나며               | (南明集上, 六)   |
| 湯沐上人을 처심 맞고파라 (初遷休上人)     | (杜謔九, 二六)   |
| 들본것을 빛내어 (街耀見開)           | (禪家龜鑑下, 四九) |
| 請 드른 다매와 노니샤 (受賂之胡與之游行)   | (龍歌, 五二)    |

와 같이 複合動詞를 形成하고 있고, 吏讀 습(白)이 第二次語幹으로 轉出하여 謙讓體로서 補助的인 意味機能으로 바뀌어지고, 다시 音韻의 變動을 일

으며 “잡, 작, 와, 오, 읊, 습, ……”, 따위 形態로 定着되어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第一次 語幹으로

祥瑞도 하시며 光明도 하시나 굿업스질씩 소달 묻춤져

(月釋二, 刊五)

을환 이물 읊노 하늬 길히 곱도다(獻可天衢直) (杜謔六, 五三)

말조물 읊형리 화덕(獻言雖衆) (龍歌, 一三)

의경우와 같이 “출다”는 “말하다”의 敬意形이다. 이것이 “S+S=~할+출”을 構成함으로써 생긴 言語的 現象은 “거다”의 “견”이 “S+S=~할+견”을 構成함으로써 생긴 것과 同軌이다. 우리는 十五世紀 文獻語에 語幹과 語幹이 結合하여 複合語를 構成할 수 있다는 것과, 그중에도 “S+견~”形의 存在와 吏諺“~爲在”形에 對하여 興味를 느끼는 바 이제 이를 檢討함으로써 古代語의 一形態를 再構해 볼까 한다.

### 第一類

中門안해 서겨신 處容아바 (時用鄉樂譜, 雜處容)

두겨신 功德과 不可思議威神力을 (月釋廿一, 一五六)

나라히 乾坤의 무를 두겨시니……(南國有乾坤大……)

(杜謔八, 一〇)

더부데 無量無邊 聲聞弟子를 두겨시니……(彼佛이有無量無邊聲聞弟子

할시니, (阿彌陀經, 一四)

다 머로든 萬德을 두겨시니 (富有萬德……)

(金剛經三家解二, 五九)

널흔 녀출 녀회 무를 빌어 두겨시니라. (遊魂賃爾曹) (杜謔五, 二)

菩薩이 들니시며 서겨시며 안조시며, (月釋二, 二六)

平히 서겨샤 소니 무들아래 누리시며 (同 二, 四〇)

變化 잘 호는 하누리 다외야 나겨시다 호야… (// 二, 二三)

여들 王子를 두겨샤터 호일호본 有諫오… (釋詳一三, 五八)

신히년의 신히년의 가겨오셔 후원 구경 가오시니 (癸丑日記卷一, P49)

여기 “두겨~ 서겨~, 나겨~, 가겨~”의 “두~, 서~, 나~, 가~, 와~겨~”가 무엇이냐는

### 第二類

觀薩이 비에드러 겨신제 夫人의 六度資 修行하시더니 (月釋二, 二六)

父王이 病호야 겨시니 (月釋一〇, 六)

소늘 가스매 다려 겨샤터 (// 一〇, 一五)

- 漢明帝 서아 겨시더니 (〃 二, 六四)
- 釋迦如來 부터 몬 ㄷ외야 겨짚겐 (〃 二, 八)
- 天帝 ㄷ외야 겨시다가 (〃 一, 二〇)
- 天子 ㅏ 오히려 蒙塵하야 겨시니…(天子猶蒙塵) (杜謔七, 二七)
- 이게 現하야 겨사說法 호시 ㄴ니라 (후에 現在說法 호시 ㄴ니라)  
(阿彌陀經, 五)
- 곳 널굽 줄기룬 가져 겨사던 (月釋一, 一〇)
- 如來 그러 三條에 브러' 외외하야 겨질췌 (〃 廿一, 其四二四)
- 조식을 못 보야 겨오시다가 (癸丑日記卷一, P102)
- 조손을 두어 겨오시던 일은 (同上 106)

에 있어서 第一類와 第二類와를 比較해 볼 때 前者는 語幹과 語幹이 直結된 形態이고, 後者는 副詞形에 連結되어 있어 現代 文法의 語辭 連結式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第一類의 造語法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古代에선 盛行한 것인 모양으로 이것이 古形에 屬할 것임은 贅言을 要치 않는다. 여기 敬意의 “시”가 後代의 發達이니 第一, 二類에서 各各

“S+겨, S+견, ”과 “겨, 견, 결”

을 얻게 된다. “겨”는 “겨다”의 基本形, “견, 결”은 그 活用形態로서 “~니, ~리”은 各各 時制 過去 未來를 나타낸다. 第一類에선 그 基本形 “S+겨”, 그 過去形 “S+견”인데, 그 未來形 “S+결”은 아직 發見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現象은 史讀文에 있어서도 一致한다. 存在를 뜻하는 “겨다”의 過去連體形이 第二語幹으로 轉用되어 存在의 뜻은 退化하고 時制 過去形으로 吏讀 “在(견)” 字로 表記되어 왔다는 事實은, 存在를 뜻하는 “있다”가 第二語幹으로 存在의 뜻은 退化하고, 時制 過去를 形成하는 補助語幹이 되었다는 것과 軌를 같이 한다. 李朝語에 들어와서 이의 古形이 몇개 傳하고 있으니

디주승 ㅁㅁ 隱 隱 健壯히 하야 나옏겨늘 幕府에서 要請호물 더러여 피오니라.

(頃壯戎鷹出 ㅁ陪幕府要) (杜謔廿四, 五六)

늘근 그리기논 보매 주류물 견되여 슬피 우더 이운 妻을 기들우겨늘 (老雁春忍汎 哀號待枯麥……) (杜謔八, 二一)

아츨 비치 늘 부우리로 혼창이 들여늘 주근 ㄷ시 자다가 현 잣옷 두 퍼서 놀라오라 (朝光入寢闥 戶寢驚弊裘) (杜謔廿二, 一)

의 경우와 같이 여기 “~겨늘/늘”의 “~겨”가 “S+겨늘”의 “~겨”의 古形임에는 秋毫도 疑心하지 않는다.

“爲有在乙(홀잇=헛거늘)”對 “나엿겨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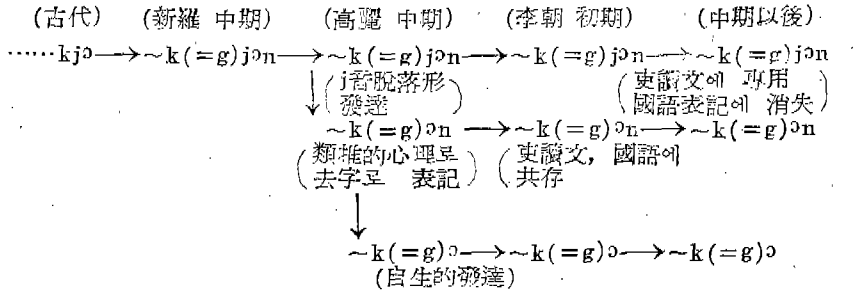
“爲在乙(홀진술/거늘)”對 “들여(=거)늘/늘”

과를 對應시켜 보면 “~在=진”을 얻게 되고

“爲去乙”對 “S+거늘”

과를 對應시켜 보면 “~去=~진”을 얻게 된다. 卽 “진”은 “거다”의 過去連體形으로 第二次 語幹에 轉用되어 時制 過去를 表示하였고, 이것이 다시 類推作用으로 “진”으로 轉用되어 그 本質적이고 第一次적인 限定的 구실에 있어서는 時制表示가 뚜렷하였으나, 各種 接尾辭을 取함으로써 時制表示가 不透明해졌다고 한 것이다.

사람부터 존당의제 읍고 후 눈비 오거나 홀겨늘 존당이 묻져사름 보려 알 의야.....呂氏鄉藥, 一九에 있어서 “~거든”形은 한개 밖에 찾지 못하였다. 誤綴이라 넘겨 버리기에 안라잡기 여기 轉載한다. 이 밖에 “~거나”形도 <佛頂心陀羅尼經>에 “커나”로 表記한 흔적이 있다라는 確證하지 못한기 여기서는 省略한다. 李朝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言衆의 觀念속에 時間 相補助語幹 “거”의 古形인 “~거”가 히미히게 意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發達圖가 可能的 것인 아닌가 여겨진다.



우리는 적어도 “爲去乙”에서 去字가 時間相補助語幹의 古形 “거”의 表記에서 起因된 表記法이 아니고서는 「진=去」의 關係를 解決할 수 없다. 去字는 ㅍ “거”, 訓 “갈”이고, 乙字는 ㅍ “을”이다. 그러고 보면 “爲去乙”은 “홀겨을, 홀질”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去字가 “진”ㅍ에 아무 꺼리질 없이 쓰였다는 것은 在字가 過去連體形이고, 去字의 訓 갈/질이 未來를 表示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過去形은 “간/진” 이라는 것을 意識하였던 時代 (去字 表記의 現存 最古文獻은 大明律)에 制定되어 간 것이라 推測된다.

### 三 結 論

以上으르써 存在을 뜻하는 “거”가 轉用되어 實辭으로서의 뜻은 退化하고, 文法的 구실을 表示하는 時間相補助語幹으로 定着되었다는 經緯를 밝혔다. 이것을 強力히 支持해 주는 學的 背景으르는 比較言語學的 見地에서 日本語 “ari(有)”가 過去와 未來時制形成에 參加하였다는 것과 滿洲語에 存在을 意味하는 말 “bi”가 動詞 現在 時制를 規定하고 있고, 蒙古語에서도 “is”를 意味하는 “bül, büjü”는 現代 蒙古語로는 “bai”로 나타나, 이것의 變形인 “ba, ba”(存在의 뜻)가 蒙古語 動詞의 過去時制를 形成한다고 하니 存在을 뜻하는 “거”가 轉用되어 時制表示의 文法的 구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異常한 일이 아니라 생각 된다. 未來時制 “겠”과 저즘 學界에 願話가 된 “할겨오, 할겨오”와 中止形 “~고”와, “爲昆과 爲在隱”에 對하여 생각한 바 있으나 後日을 期하고 本論을 끝 맺는다.

註 1: 李崇寧博士: “古代語의 形態論의 研究試圖”(뒤현씨 선생 환갑 기념 논문집 所收) P.249

註 2: 同 上 P.238

註 3: 三國史記卷四六

註 4: 同書: P.437-38

註 5: 同上: P.438-39

註 6: 許雄教授著: 龍飛御天歌詩歌經典篇 P.180-82

註 7: 李熙昇教授: 存在詞 “있다”에 對하여: 서울大學校 論文集 第四輯 P.39

註 8: 小倉博士著: 朝鮮方言의 研究 下卷 P.500-3

註 9: 李崇寧博士著: 音韻論研究 P.294

註 10: 同上 P.267

註 11: 小倉進平博士著: 鄉歌及 史記의 研究 P.411

註 12: 金澤任三郎博士著: 國語學通論 P.104-7

註 13: 梁柱東博士著: 古歌研究 P.216-23; P.428

註 14: 小倉進平博士著: 同上 (鄉歌): P.427

註 15: 李熙昇教授: 同論文 *ibidem*

註 16: 小倉博士著: 同上 P.404-5

註 17: 李熙昇教授: 同論文 P.47